

프로젝트법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내러티브 연구

이성옥¹ · 정회경^{1*}

A Narrative Research on Occupational Identity of a TVET Teacher Using the Project Method in Programming Fields

Sungock Lee¹ · Hoekyung Jung^{1*}

^{1*}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aichai University, Daejeon, 35345 Korea

요 약

본 논문은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법으로 강의하는 교사가 어떠한 직업정체성을 가지는지 연구했다. 연구 참여자인 S교사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시작하여 지난 20 여 년간 프로그램을 강의해왔다. 연구결과로 프로젝트법으로 강의하는 프로그래밍 교사의 직업정체성은 여섯 가지가 발견되었다. S교사는 프로젝트법을 통하여 강의할 때 학생들이 실업자에서 전문 직업인이 되는 행동 변화를 경험하며 교사로서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꼈다. 프로젝트법은 S교사를 전문가로 이끌도록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긍정적 교사로서의 강화 경험이 그로 하여금 정년퇴직의 시기가 지났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삶을 유지하며 교사로서 살아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하였다. 업무강도가 다른 직업에 비하여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S교사에게 보이는 것은 ‘번아웃’, 소진이 아닌 생동감, 자신감, 만족감이다. 본 논문은 프로젝트법을 교수법으로 채택한 프로그래밍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occupational identity by examining the narrative of the life of a TVET teacher using the project method in programming fields. Teacher S, a participant in the study, started as a part-time lecturer at university and has been teaching programs for the past 20 years. As a result, six kinds of occupational identities of a programming teacher who teach by project method were found. S experienced pride and pride as a teacher through the project method. The project method served as a motive for continuous self-development to lead S to an expert. His experience as a positive teacher made him wish to maintain this life and live as a teacher as long as his health permits, even after retiremen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exploring the structure of the occupational identity of a TVET teacher using the project method in programming field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yet.

키워드 : 교사의 직업정체성, 내러티브 연구, 직업정체성, 프로젝트법,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Keywords : Narrative research, Occupational identity, Project method, TVET teachers, Programming teachers

Received 7 July 2020, Revised 8 July 2020, Accepted 25 July 2020

* Corresponding Author Hoekyung Jung(E-mail:hkjung@pcu.ac.kr, Tel:+82-42-520-5640)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aichai University, Daejeon, 35345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0.24.10.1348>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I. 서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훈련공급자 중심의 물량 배정방식이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08년도에 신설된 직업훈련제도이다. 정부가 특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 수용자에게 일정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하는 일종의 ‘바우처’ 방식이다[1]. 구직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계좌 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직업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훈련시장의 인프라가 확대되다 보니 인적 인프라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한 늘어났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치는 자’를 의미한다. 동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누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듯,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제도 개편으로 인해 비교적 까다롭던 훈련 교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누구나 자유롭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2].

근본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지식전달은 기본이고 취업지원 및 상담, 사후 관리까지를 포함하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학생들이 무엇보다 바른 직업의식을 가진 직업인으로 도약하도록 도와야하기 때문에 훈련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3].

교사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반면, 훈련 현장에서 훈련교사가 다양한 학습자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애쓰며 직업정체성을 다듬어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면모를 추적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련 연구의 주된 흐름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규명과 분석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3]. 직무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 자신의 일과 직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도 중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내러티브 방식을 통하여 20년 이상

프로젝트법을 교수법으로 채택한 프로그래밍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을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법을 교수법으로 채택한 프로그래밍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국내에서는 주로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직업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체육 교사의 직업정체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체육 교사의 직업적 삶을 통한 교사의 직업정체성을 연구하였다[4]. 이 연구에서 직업정체성 형성과 그 과정이 단선적, 일방적 과정이 아닌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며, 교사의 경력이 쌓임에 한 가지 형태의 단순 정체성이 아닌 복합정체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역동적 변화를 거치면서 복합적인 직업정체성을 띠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직업정체성 형성과 그 과정에서 근무하는 학교의 변화에 따른 맥락적인 변화에는 일정한 흐름이 유지되었다[4].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과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5]. 진로진학상담교사 일곱 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하고, 근거이론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혼란과 갈등을 극복해 가며 교사로 다시 서는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수교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의 직업정체성과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적응에 관련된 각각의 하위요인들의 변인과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지만 특수교사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어떤 유형의 정체성을 가지는지 이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6]. 그 결과, 특수교사들이 직업 및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특수교사의 근무환경에 따라 정체성 인식이 다소 다름이 보였다. 따라서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베풀며 교사로 살아가기’라는 핵심 범주에 해당하는 직업정체성이 결과로 도출되었으나

연구대상들은 학교조직 사회에서 정체성 혼란과 존재감 위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7].

공업고등학교 기계과 교사의 직업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생애사 연구에서 40여 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한 교사 2인을 선정하여, 내러티브로 탐구하였다[8]. 공업계 기계과 교사의 교직 경험에 따른 직업정체성은 정체성 표류, 정체성 안정, 정체성 전환, 정체성 유보, 정체성 승화, 정체성 통합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달하였다. 직업정체성은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구성되며 발달,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건교사, 특수교사, 체육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일반적으로 교직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한결같이 연구대상이 된 교사들이 직업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직업정체성은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창시절 어느 교사의 탁월한 교과 지식에 매료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삶의 태도, 학생들과의 관계, 성품 등과 같은 의도한 교과 지식 너머의 것들이 정체성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교사 자신의 정체성이 수업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II. 연구방법 및 설계

내러티브란 대체로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내러티브를 연대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행동 혹은 일련의 사건·행동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음성 또는 문서 텍스트라고 정의한다[9].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 중에는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개인적 경험을 알리고 또한 개인의 정체성과 스스로 보는 방식을 해명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자긍심 있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나아가고 있는 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을 형성한 경험을 탐구하고자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내러티브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내러티브가 과거 구체적 경험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며 이야기들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내러티브는

시작, 중간, 종결의 과정에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내러티브 면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말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의 순서와 관련 없이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열된다. 연구자는 자신의 해석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련의 연속성을 지니도록 배열해야 한다. 자료 분석은 자료를 가공하여 분석에 적합하도록 체계화시키는 과정으로 코딩을 통하여 주제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최종으로 그림, 표, 논의의 대상인 자료를 덧붙인다. 표 1의 내용처럼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여섯 단계로 제시했다[9].

Table. 1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the narrative approach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Narrative research
Data Organization	Creating and organizing data files
Reading and making memos	After reading the text, making a margin note. 1st coding
Describing code and material data	Organizing stories and experiences in chronological order
Sorting data by code and subject	Checking the story, grasping the revealed phenomena, checking the contextual material
Data analysis	Interpreting the story in a larger sense
Data presentation and visualization	Presenting in courses, theory, narratives that focus on unique and general living characteristics

연구자는 프로젝트법을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체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McAdams의 Life Story 면담기법을 활용하였다[10]. 구술 자료의 해석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문헌 자료, 연구 참여자의 인사기록카드, 연구자의 메모,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S교사는 대전에 있는 민간훈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재단법인 훈련 기관에서 전임교사로 정년퇴임을 하고 정년이 없는 민간훈련 기관으로 이직하였다. 대학에서 시간 강의를 하면서 교육과 인연을 맺어 직업훈련 기관에 근무하게 되었고 현재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 응용 SW개발, 빅데이터, 인공지능분야의 강의를 전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에 대한 종합분석은 Creswell의 여섯 단계의 내러티브 접근 방식 자료 분석 과정을 따랐다[9].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자료를 체계

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그 연구 방법과 과정에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애썼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에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의문이 드는 사항은 기록을 해두었다가 다음 면담 때 참여자로부터 확인(member check)을 받았다. 면담이 끝난 후라도 전화나 SNS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IV. 결 과

프로젝트법을 강의에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4.1. '행동의 변화'를 도출하는 프로젝트법

S교사는 교육의 핵심은 행동 변화이고, 백지의 상태의 학생들이 자신에게 와서 고급 프로그래머로 취업했다는 것은 '엄청난 행동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 본다.

S교사는 knowing과 doing이 다른 영역이고 훈련생들은 doing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S교사는 훈련생들이 직접 해결할만한 상황을 과제로 만들어주고 교수법을 그에 맞게 사용한다. 프로젝트법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 경험을 교실에서 미리 체험하게 한다. 이런 수업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회사에 가서도 훈련 기관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근무하고 바로 적응한다. S교사 자신이 현업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 분야로 진입을 했던 경험 덕에 그의 수업 방식은 항상 현장 기반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수행 역량을 갖도록 훈련시킨다. S교사는 행동주의적 교육철학을 자신의 상황에 비유하며 백지 상태였던 학생들이 자신을 만나서 프로그래머가 된 것에 자긍심을 드러냈다.

4.2. 프로젝트법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S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코딩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재미있다.'라고 표현한다. 문제와 과제를 해결해나가며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데에 희열을 느끼며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간다. 프로그래머는 전적인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수업 중에도 열어놓는다.

S교사는 이 직업이 누구나 학력을 불문하고 도전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교수법을 달리하여 우수한 학생을 더 우수하게 이 해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가능한 더 쉬운 방법으로 눈 높이에 맞춰 가르친다고 한다. 일 자체를 즐기며 재미있어하는 모습에서 행복감이 느껴진다.

4.3. 전문가로 견인하는 프로젝트법과 지속적 자기개발

S교사는 프로젝트법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면서 자신을 전문가라고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해왔다.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S교사는 IT 분야에 새로운 언어가 개발될 때마다 자신이 먼저 배워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프로젝트를 통하여 숙련시킨다. S교사는 개발 트렌드에 앞서가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취업할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발 환경에 익숙한 구직자가 된다.

4.4.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몰입

S교사는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몰입' 하는 직업정체성을 구축하였다. 학생들을 교육하여 변화와 성장에 이르도록 직접적 지도와 간접적 지도를 넘나든다. 직접적 지도는 훈련교사가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태이다. 반면, 간접적 지도는 훈련교사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바라봐 주고 지지해주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측면으로 S교사는 교육은 '행동 변화'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법을 활용한다. 학생들에게 심어진 개발자로서의 소질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응용력을 길러 일머리를 높이는 훈련을 시킨다. 개발자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과제 제출 또한 정해진 포맷이 아닌 자유로운 포맷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막힐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교육 자료와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4.5.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기

S교사는 다른 IT 교사와 달리 자신의 모든 수업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우리나라 개발 환경에서는 여러 이유로 자신의 개발한 것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프로그래밍 분야에 발전이 없게 된다.

S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자신의 자료를 오픈한다. 평가 자료, 수업 교재, 소스코드 등 S교사는 그렇게 모든 것을 공개하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S교사는 지난 10년 간 강의 내용 및 모든 자료를 웹사이트에 올렸다. 프로그래밍 분야의 직업 환경 상 공부하지 않으면 늘 도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코드를 늘 올려놓으며 배우는 만큼 업데이트하고 있다.

4.6. '내 힘이 닿는 한' 기술 전수하기

S교사는 이미 예순이 넘어서 전 훈련 기관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현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목표는 힘이 닿는 한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다.

S교사는 안정된 공무원이란 직업을 단번에 그만두고 학력을 쌓았다. 회사 생활이 학업에 방해되니 그만두고 공부하는 데에 집중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실무능력을 쌓았지만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업도 그만두고 훈련교사로서 살아왔다. 결심하면 그대로 추진하며 살아온 그는 생업도 해결하지만 보람을 느끼는 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훈련교사로 살아가고 싶다.'는 S교사의 인생의 목적은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직업을 영위하는 태도는 전직했던 다른 직업과 상반된다. 학생들이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고, 목숨이 다하는 한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생의 꿈인 S교사는 지금 하는 일이 가장 보람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젝트법을 교수법으로 채택한 프로그래밍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을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하여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연구결과는 '프로젝트를 교수법으로 활용한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나는 누구인가?'와 '프로젝트를 교수법으로 활용한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함으로써 정의내릴 수 있다. 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총 여섯 가지, '자신의 직업과 역할에 뿌듯해함', '프로그래머로서 희열을 느낌', '자신을 전문가로 이끄는 지

속적인 자기계발', '타인을 전문가로 도약시키는 지렛대', '프로그래밍 분야의 발전의 마중물', '삶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 추구'의 직업정체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표 2에 보인다.

Table. 2 Project Method, Occupational Identity, Behavior Observed

Project Method	Occupational Identity	Behaviour Observed
'Behavior change'	Being proud of my job and role	If it helps students get a job, I learn new languages and teach them to students.
Solving new problems	Feeling joy as a programmer	Repetition of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ms flexibly with students, rather than prescribed methods
Project pedagogy and continuous self-development that lead to experts	Continuous self-development that leads me to an expert	Efforts to evolve through projects, ahead of trends
Immersion as an expert for students' change and growth	A lever that leaps others into experts	Strengthening project methods and cultivating students' problem-solving skills
Opening all the skills that I hav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programming fields	Distributing my own educational materials and coding materials to junior teachers and students free of charge to help this field and others
Teaching and delivering the skills "as long as I live"	pursuing of life goals continuously	To maintain this life and to live as a teacher as long as my health permits even after age 60.

S교사는 프로젝트법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목도하며 실업자에서 전문 직업인이 되는 상황을 '엄청난 행동변화'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프로젝트법을 활용한 직업훈련에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끼도록 이끌었고 자기와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 더 전문성을 쌓기 위해 자기가 몰입하는 환경을 도출하였다. 새로운 개발 언어도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이 직접 배우고 프로젝트법으로 순환시켰다. 백지의 훈련생도 S교사를 거치게 되면 사람이 사람답게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인 직업을 갖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프로그래머가 문제를 해결할 때 느끼는 희열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강화는 수동적이며 일방적인 강의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규정된 방법이 아닌 학생들과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프로그래머로서의 미덕인 ‘문제 해결능력’이 학습되어진다[11].

프로젝트법은 S교사를 전문가로 이끌도록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과업을 학생과 교사 모두 해결해나가며 새로운 지식과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해야했고 지속적으로 변화무쌍한 프로그래밍세계의 각종 언어 및 코드를 섭렵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프로젝트법은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도 모두 동기화된 발전을 이르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였고, 실업자인 상태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탈바꿈되어진다. 자신의 학생들이 전문가로 도약하게 되는 프로젝트법은 교사에게 있어서 타인을 견인시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 학생이 발전하는 모습을 교사는 바라보며 더욱 고심하여 프로젝트 교수법을 구사하고 강화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켜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한다[12].

S교사는 대다수의 프로그래밍 교사들과 달리 프로젝트법으로 교육훈련을 시켜가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학생들과 공유한다. 개발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코드를 타인에서 오픈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S교사는 소프트웨어분야의 발전과 후배교사와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 자신은 이러한 방법으로 도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사생활을 통하여 S교사는 강한 직업적 성취감과 직업정체성을 느껴왔다. 긍정적 교사로서의 강화 경험이 그로 하여금 정년퇴직의 시기가 지났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삶을 유지하며 교사로서 살아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소망은 삶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 추구라는 직업정체성을 부여한다.

S교사는 아침 7시경에 출근하여 하루를 시작한다. 보통의 직장인의 근무시간이 9~18시라고 가정하였을 때 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교사에게 보이는 것은 ‘변아웃’, 소진이 아니다. 그는 생동감을 보이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생계도 해결되지만 학생들과 재미있게 문제를 풀며 보람까지 느낀다.’란 표

현에서 자신의 직업을 향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는 초중등 교원이 교사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가며 직업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결이 다르다.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직업훈련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다루었다는 점과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이나 경험이 아닌 직업정체성 그 자체를 다뤘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코딩을 학습하기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는 프로젝트법을 교수법으로 채택한 프로그래밍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교사는 입직 전 후, 시점은 모두 다르지만 교사로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직업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 경험의 어떠한 면이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주어 교사로서 몰입하게 하는 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 근무 기간, 소속 등에 따른 프로젝트법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개별화된 경험에 관해서 탐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셋째, 직업훈련의 현장에서 검증된 거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법을 프로그래밍 교육훈련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Pai Chai University in 2020.

References

- [1] Y. S. Lee, S. S. Han, and S. W. Kang, “Relationship between License Acquisition by Cosmetology Trainees and their Future Employment,”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vol. 16, no. 1, pp. 51-58, 2020.
- [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ternet]. Available: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218281&ancYd=&ancNo=&efYd=20200526&nwJoYnInfo=Y&ancYnChk=0&efGubun=Y&vSct=#0000>

[3] M. H. Lee, S. Y. Lim, and W.C. Kim, "A Need Analysis on Roles of Class Teachers That Trainees Perceive in Private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Journal of Korean HRD.*, vol. 11, no. 2, pp. 57-78, 2016.

[4] T. H. Yu,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Development in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39, no. 3, pp. 725-739, 2000.

[5] E. S. Yu and J. Y. Lee, "A Study on the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Teachers Occupational Identity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2, pp. 127-156, 2017.

[6] J. S. Park and S. Y. Hwang, "Recognition of Identity by Special Education Teacher,"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51, no. 4, pp. 37-59, 2017.

[7] J. O. Kwon, "Professional Identity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A Grounded Theory Approach,"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1, no. 1, pp. 64-73, 2015.

[8] D. G. Cho and S. Y. Lim, "Life History Research on the Vocational Identity of Mechanical Education Teachers in Technical High Schoo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ors*, vol. 42, no. 1, pp. 1-29, 2017.

[9]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eoul: Hakjisa, 2019.

[10] D. G. Cho, "Life history research on the vocational identity formation of mechanical education teachers in technical high school," *Ph. D. dissertation*, Koreatech, Cheonan, 2017.

[11] K. C. Hong and Y. S. Cho, "A Novel Engineering and Creative Learning Process Based on Constructionism,"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vol. 17, no. 3, pp. 213-220, Sep. 2019.

[12] H. J. Kim, "Effects of Self-assessment using Smart phone Video Recording on Essential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2, no. 9, pp. 1199-1207, Sep. 2018.



이성옥(Sungock Lee)

2015년 배재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2020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박사
 2015년 ~ 2020년 8월 (주)글로벌인재개발 이사
 2020년 9월 ~ 현재 배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직업훈련, AI, 빅데이터, VR, IoT, Big Data



정회경(Hoekyung Jung)

1985년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사)
 1987년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석사)
 1993년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박사)
 1994년 ~ 현재 배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멀티미디어 문서정보처리, USN, IoT, Machine learning, Bigdata, Embedded system